

## 하회·양동마을에 작용된 환경설계원칙과 文化景觀相

신 상 섭  
우석대학교 이공대학 조경학전공  
(2002년 10월 25일 접수; 2003년 3월 26일 채택)

###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Design Principles and Cultural Landscape Pattern of the Hahoe · the Yangdong Traditional Village

Sang-Sup Shi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Woosuk University, Jeonbuk 565-701, Korea  
(Manuscript received 25 October, 2002; accepted 26 March, 2003)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explain the meaning of the environmental design principles and cultural landscape pattern(dualistic space organization) of the Hahoe(河回:winding river village) · the Yangdong(良洞) traditional village.

Village's space organizations based on Shamanism, Yin-yang and Five elements principle, Feng-shui idea, social system and Confucian ideas. And it were accomplish the cultural landscape pattern(village:form+object=pattern) through the frame of settlement space.

As a central persons of villages(the Hahoe · the Yangdong) construction, Suhae(西厓) experienced through Chunghyodang - Wonjichongsa - Ogyonchongsa - Pyongsansowon channel(忠孝堂 - 遠志精舍 - 玉淵精舍 - 屏山書院) and Kyomam(謙庵) experienced through Yangjindang - Binyeonchongsa - Kyomamchongsa - Hwachonsodang(養眞堂 - 賓淵精舍 - 謙庵精舍 - 花川書堂) channel. Also Woojae(愚齋) experienced through Suhbackdang - Khankachung - Dongkangsowon(古百堂 - 觀稼亭 - 東江書院) and Hoejae(晦齋) experienced through Moochumdang - Hyangdan - Oaksansowon(無添堂 - 香壇 - 玉山書院). It is space organization of themselves interact contrast and sequence principles with competition in good faith.

And ecological art-space, that is, environmental space organizations of traditional village has been reflected harmony between nature and artificiality, spatial rhythm and sequence, spatial hierarchy between upper classes and humble class, permeability space, asymmetrical balance, aesthetic space perception.

The humble classes hold a ceremony Hahoe's Pyolsingut-Talnori(maskdance drama), Dangjae(堂祭:religious service) at the Dang(堂:shamanism spot) and Yangdong's Sohraesulnori, Hohminori. And the upper class hold a ceremony Hahoe's Julbulnori and Yangdong's Chungjanori connected with culture of confucianism. Specially, the cultural structure of the village is evidence of a contrast between the upper class and the humble classes, time, method and location of ceremony(performance).

Key words : Dualistic space organization, Contrast and sequence, Ecological art-space

#### 1. 서론

역사공간은 시대와 지역 및 상징적 문화에 있어서 그 특수성으로 인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

하기 위한 방법의 예술적 표현<sup>1)</sup>이며, 문화경관상은 주민의 가치관, 사회구조, 사회제도, 관습, 기술 등의 문화요소가 자연경관에 오랜세월을 두고 작용하여 자연환경과 생태적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역사를 내포한다.<sup>2)</sup> 우리의 마을 또한 역사적 상징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되어 왔는데, 자연을 이해하려는 관념 하에 좋은 자리를 찾고, 지역 특유의 자연경취

Corresponding Author : Sang-Sup Shi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Woosuk University, Jeonbuk 565-701, Korea  
Phone : +82-63-290-1492  
E-mail : ssshin@woosuk.ac.kr

를 이용하여 인공이 접속되는 유기적 미학 공간임을 감지하게 된다. 또한, 지역 및 시대 또는 집단에서 형태나 재료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기능적 표현 또는 풍토, 토속, 지역적 양식을 의미하는 vernacular landscape로 지역의 전통, 문화적 양식에서 형성된 형태 또는 경관<sup>3)</sup>으로 전통사회의 정체성과 연계됨을 보여준다.

전형적인 전통마을은 너른 들과 평온한 案山이 있고 맑은 개울이 흐르며 산을 등지고 마을길이 뻗어있는 背山臨水 지형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양명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찾으며, 지역의 풍토와 자연정취를 이용하여 왔다. 안동 하회와 경주 양동마을은 이러한 卜居 들을 기반으로 양반과 서민 또는 동족과 이족간 공존문화를 구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탐색을 통한 연구사의 조명과 선조들의 환경인식을 토대로 연구의 타당성을 모색하고, 마을 입지와 관련한 공간구성 요소들(살림집, 별서와 누정, 서당과 서원 등)의 문화경관적 정체성을 추출키 위해 공간구조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환경설계원칙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반과 서민 또는 동족과 이족들이 경영한 하회·양동마을의 살림집과 별서, 서당과 서원, 민간신앙요소 등에서 문화경관상을 구축하게 되는 실제 구명은 물론 전통적 환경설계원칙을 추출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모색코자 한다.

전통마을 관련 연구가 민속, 지리, 조정 및 건축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마을의 공간특성 조사 및 사상 그리고 경관과 관련하여 경상북도(1979; 양동, 하회마을조사보고서), 이재근(1981; 민간신앙), 김한배(1981; 경관구조), 아산군(1983; 외암리 조사보고), 승주군(1983; 낙안읍성 조사보고서), 황경진(1987; 영역성), 이영진(1989; 공간구성체계), 김한배(1992; 마을과 읍성 경관성), 심혜자(1993; 외암리 공간구성), 남계주군(1994; 성읍민속마을 정비계획), 박찬용, 현중영(1999; 마을풍수 시각구조) 등이 참여하였다. 공간구조 해석면에서 김용집(1983; 공간구성), 이배화(1991; 공간구성), 김봉렬(1999; 양동마을, 방촌마을 양식), 안계복, 최기수(1999; 갈림길 유형과 서식관), 등의 연구를 들 수 있고, 마을보전

과 관련한 제안은 강동진(1997; 양동마을 보전방법론, 2001; 유지와 관리방법론), 신상섭(2002; 경관보전 정책대안)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sup>4)</sup> 이들 연구는 전통마을의 조영 실체를 구명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환경체계 및 경관적 정체성 도출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점인데, 환경요소들을 근거하여 사회경관 지표와 환경미학적 경관정체성 연구성과의 추출은 특징적 향토 경관상 도출과 함께 문화환경을 해석하는 방법체계를 추출해 볼 수 있는 근거로서 연구의 당위성이 부여된다.

## 2. 삶 속에 전수된 주거환경의 경영과 환경 설계요소

전통마을은 산기슭의 경사면 양지바른 곳에 남향하여 자리를 잡으며 背山臨水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입지는 주거지조성 및 경작물재배에 유리한 조건이 되는데, 이웃과 通婚圈을 유지하거나 자식에게 分財라는 형식으로 토지를 확보해감에 따라 영역을 넓히는 자연의 이용 내지는 공간에 대한 의식표출이 住居文化로 전해오고 있다.<sup>5)</sup> 주거지는 다른집과의 사생활 보호, 지세와 시계를 고려한 좌향이 결정되어 양명하고 안전한 자리를 선택하게 되며, 전면의 경작지는 하천을 낀 門前畚과 바깥들로 구분된다. 길은 물길과 관계를 갖으며 지형이 갖는 완만한 상승감과 위계에 따라 바깥길, 어귀길, 안길, 셋길로 구성되는데, 바깥길은 마을영역을 인식시키고, 어귀길은 분절영역, 안길은 정자나 헛터 등이 설정되는 공동체 거점이 되고, 셋길은 공동우물이나 빨래터 등을 끼고 살림집의 매개영역이 된다.

마을입지와 공간구성에는 민간신앙과 陰陽五行思想, 풍수지리사상과 정치사회구조 등이 지배요인이 작용되는데 샤머니즘과 음양사상이 결합되어 풍수라는 공간적 환경 규범이 확립되었고, 후대에 유교의 계급 및 조상숭배 관념과 부합됨으로 설득력 있는 환경설계기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한편, 유교적 경관지표물(宗家와 사당, 재실, 서당, 서원, 별서와 정자 등)들은 도덕률을 講學하고 혈연적 동질성과 가문 권위를 계승시키는 등 사회지표로 전승되는 양상을 발견하게 된다.<sup>6,7)</sup> 특히 마을 입지에는 背山臨水에 藏風得水形이 선호되는데, 이는 한국

Table 1. The cultural assets status of Hahoe · Yangdong traditional village

Division	Cultural assets	Area(m <sup>2</sup> )	Houses	Residents	Building	Date
Hahoe	Important fork date no. 122	5,288,008	95	212	straw-roofed:135, tile-roofed: 106, others: 78	1984. 1. 10
Yangdong	Important fork date no. 189	969,430	150	365	straw-roofed:82, tile-roofed: 148, others:209	1984. 12. 24

풍토에 부합되는 의미와 위요환경을 선호하는 심리적 경향과 둘러싸는 지형을 精氣가 서려있는 공간으로 간주하는 범신론적 사고와 결부된다.

조선의 실학자 李重煥(1690-1752)은 택리지에서 삶의 공간을 地理, 生利, 人心, 山水를 통합하는 광역환경체계에서 토지이용에 관한 포괄적 의미를 복거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洪萬選(1643-1715)은 산림경제에서 복거 좌향과 지형조건을 언급하고 있으며, 徐有樂(1764-1845)는 임원경제지에서 相宅의 조건으로 이른바 배산임수+장풍득수의 택지조건을 제시하면서 산맥의 흐름이 팔을 편 듯한 圍繞局을 권장한다.<sup>8)</sup> 즉, 卜居와 樂土의 개념은 지리, 산수와 같은 자연환경은 물론 인심, 생리와 같은 사회문화가 통합된 체계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심리학적 측면과 광역공간구성과 관련한 환경설계요소가 영향하는 산물임을 시사하는데, 훌륭한 삶의 터전이 되며 아름다운 자연 景觀相을 갖춘 곳을 의미한다.

### 3. 결 과

#### 3.1. 하회(경북 안동 풍천 하회), 양동마을(경북 경주 강동 양동)의 입지성

산은 물을 얼싸안고 물은 산을 휘감아 돌아 지명도 河回인 '물동이동'은 풍산류씨 동성부락인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眞景으로 130여호 고택들이 잘 보존되어 1984년 전통민속마을로 지정되었다. 풍수적 蓮花浮水形 길치로 회자되는 하회는 花川이 흘러 돌아 서쪽으로 흐르고, 넓은 모래밭과 동수비보림(송림)이 울창하며 芙蓉臺 등이 조화를 이루어 山水眞景한 문화경관상을 연출하는데, 동북쪽 花山을 기점으로 병산, 남산과 규봉, 보다 멀리 遠志山이 서

남쪽을 에워싸고 있다.(Fig. 1) 마을에는 멀리 병산을 마주하여 屏山書院(사적 26호)이 자리하고 花川을 경계로 정주공간에 남촌과 북촌이 형성되어 養眞堂(謙庵 柳雲龍 고택, 보물 306호)과 忠孝堂(西涯 柳成龍 고택, 보물 314호), 북촌덕과 남촌덕(중요민속자료 84호, 90호), 遠志精舍와 賓淵精舍(중요민속자료 85호, 86호) 등이 자리하며, 건너편에 화천서당 그리고 玉淵精舍와 謙庵精舍(중요민속자료 88호, 89호) 등의 별서가 입지한다.<sup>9)</sup> 당제 및 별신굿(국보 121호, 중요무형문화재69호)과 출블놀이, 삼월삼짇날 화천놀이, 단오, 7월의 푸긋, 복쌈이 등 민속신앙 및 놀이문화가 전승된다.

양동마을은 孫昭(1433~1484)를 입향조로 하는 월성 손씨와 성리학자 李彦迪(1491~1553) 후손들이 여강 이씨의 두 씨족이 500여년을 견제와 협조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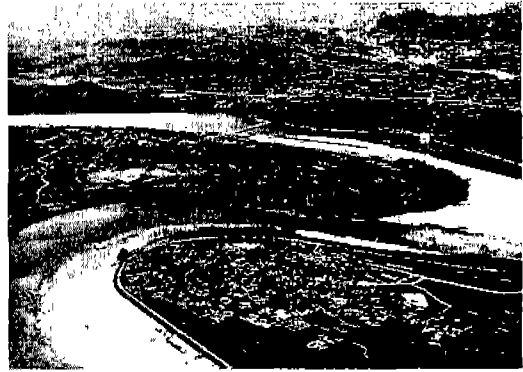


Fig. 1. Yun-yang shaped topographical type(山太極, 水太極) landscape of the Hahoe traditional village.

Table 2. Environmental design element of the traditional village

Division	Environmental design element
자리잡기	뒷산(背山)이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물길이 마을 앞을 감싸며 마을 안쪽이 넓어진 공간구면, 주거지와 경작지 그리고 배후지를 포함하여 지리와 생리, 인심과 산수를 두루 갖춘 곳,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안온한 터
영역성과 조영물	마을의 영역을 알리는 구분요소로 신앙의례시설(장승과 솟대, 당(堂)과 당목(堂木), 효자·열녀비, 선정비, 사당과 묘자리 등), 교육시설(서원, 서당), 휴식시설(정자, 정자목, 마을숲, 연못 등), 생활시설(살림집, 대·소종가, 우물, 빨래터, 마을마당과 타작마당, 마을길, 문전담 등) 등
마을길	어귀길(고갯길), 동구(마을입구 : 정자목, 장승, 성황당, 효자·열녀비), 갈림길과 안길(마을마당, 우물, 빨래터), 골목길(막다른길), 샛길(오솔길)
생 태	배산임수(背山臨水), 장풍득수(藏風得水)의 지형, 생태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살림집의 남향배치 등 자연에너지의 활용, 미기후의 고려(연못, 저수지, 실개천과 수로), 마을숲(방풍림, 비보숲, 당산목), 자연재료의 이용(흙, 돌, 나무)과 투수성 포장 등
경 관	마을 내부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개방적인 경관과 외부에서는 폐쇄된 경관, 종가와 정자 등 경관관찰점 조성, 자연이 둘러싸고 마을이 그 속에 접속되어 환경심리적으로 안정된 조망권 형성, 8경과 같은 승경지의 경영, 민간 신앙, 놀이, 풍속과 관련한 문화경관

공존하고 있는데, 현재 340여동의 건물군에 많은 문화재가 있어 1984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Fig. 2). 마을 형국은 勿字形으로 서북쪽 雪蒼山과 남동쪽 聖主峰에서 뻗어 내려온 구룡에 마을이 형성되는데 4개 산줄기와 3개 골짜기로 이루어진다. 특히, 골짜기 구룡에 이씨 종택(無添堂, 보물 411호)과 손씨 종택(書百堂, 중요민속자료 23호)이 자리잡고, 마을 어귀엔 손씨 分家인 觀稼亭(보물 442호)과 이씨 分家인 香壇(보물 412호)이 나란히 구룡에 포치되었는데 이렇게 경합하는 양상은 몇몇 정자(수운정과 심수정, 중요민속자료 80호와 81호)들과 강학공간(안락정과 강학당, 중요민속자료 82호와 83호) 등의 배치에도 나타난다. 문화경관요소로 堂木(물봉입구)과 줄당기(정월과 8월 대보름때 길흉화복을 점치며 화합과 단결을 도모), 서래술과 호미씻기(3복후 세벌논을 맨 뒤 지신밟기와 머슴들을 격려) 등이 전승된다.<sup>10)</sup>

### 3.2. 공간구성에 반영된 문화경관상

#### 3.2.1. 마을과 景觀相

하회의 자연을 山太極과 水太極 형상, 蓮花浮水形 또는 다리미형이라 하는데, 산하의 형상은 태극모양이 되며 삶터는 S자형 화천을 사이에 두고 살림집과 별서로 분리된다. 즉, 태극도형을 이루는 산하의 형상에 취락과 별서, 서원 등이 실존적 생활과 초월적 풍류를 보완하고 감응하는 문화경관 지표들(누정, 서원, 별서, 살림집)이 아름다운 경관상을 연출한다. 마을 뒷산은 花山, 앞강은 花川, 斷崖는 芙蓉臺로 연꽃 명칭과 관련되는데, 花川에 떠있는 것 같은 마을형태는 불룩 솟은 지세에다 충효당과 양진당, 남촌택은 중앙부 즉, 연꽃 花心에 위치하며 종속가구들은 주변에 연꽃잎 같이 방사상으로 입지한다.

마을 큰길을 중심으로 북촌과 남촌이 2원화 되는데, 안길은 북촌의 양진당, 남촌의 충효당을 향하며



Fig. 2. 勿 shaped topographical type(勿字形) landscape of the Yangdong traditional village.

커다란 나뭇가지를 연상하는 셋길로 이어지고 주거 좌향도 방사향을 취하고 있다. 즉, 종가를 중심으로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전개되는 방사적 위계구조 속에 마을길이 관통되는 연속·울동적 구성 체계를 보인다.(Fig. 3) 뚜렷이 경계지워지는 마을형태와 S자형의 화천, 입면요소로서 부용대와 만송정 松林 등은 대표적 경관 지표물인데, 이 송림은 풍수적 염승 의도로 부용대의 氣를 완화시키려는 의도하에 조성된 경관요소로서 불륨으로 보아도 아름답거니와 부용대를 투과 조망하여 하나의 막구실을 함으로써 역사경관의 질을 한껏 높여주고 있다.<sup>6)</sup>

양동마을은 안강평야의 동쪽 구릉지에 조산인 호명산과 성주봉을 안대로 삼아 主山인 설창산을 배산하는데, 勿字形 능선은 좌청룡과 우백호의 기맥을 형성하며 안락천이 형산강과 역수형태로 합류하는 背山臨水+前窄後寬의 국면이 되고, 살림집과 정자는 구릉지 사이 골짜기 능선(물봉골, 안골, 장터골)에 포치되어 밖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으나 안으로 들어가면 서서히 감지되는 폐쇄된 산촌분위기를 나타낸다. 불자형국의 어깨부분이 된다는 윗말 안골의 가장 높은 지점에 손씨 대종가인 孫東晚 가옥(書百堂)이 위치하고 마을 어귀 아랫말 물봉골의 높은 봉우리 바로 밑에 소종가인 觀稼亭이 자리한다. 중간 골짜기인 거릿말의 좌우측 능선상에 안쪽으로는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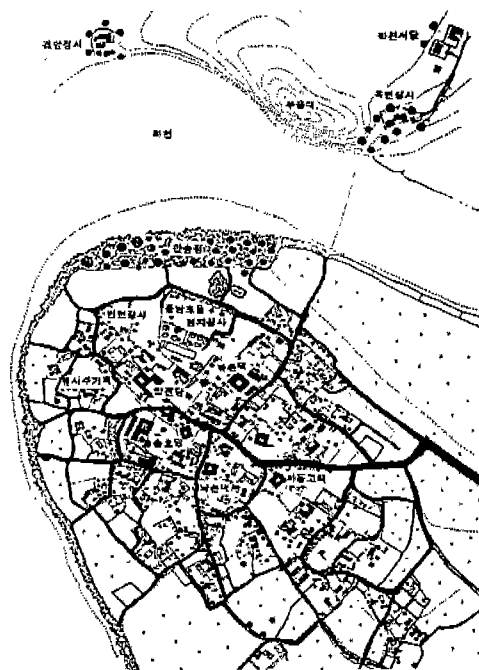


Fig. 3. Arrangement plan of the Hahoe traditional village.

백당에 대응하여 물봉골 끝자락에 이씨 대종가인 無添堂이 위치하고 바깥쪽 능선상에는 판가정에 대응하여 물봉 동쪽으로 소종가인 香壇이 자리한다. 이러한 종가의 상응적 포치구도는 정자(水雲亭과 心水亭)와 서당(安樂亭과 講學堂) 그리고 옥산서원(李彦迪을 배향)과 동강서원(孫仲暉을 배향)을 경영하는 양상 동 살림집과 누정, 서당과 서원의 포치에서 대비되는 문화경관상이 된다.(Fig. 4)

구릉 고지대에 양반들의 살림집(기와집)이 자리하고 골짜기 아래 저지대에 소작인이나 노비층의 가람집(초가집)이 1-3호가 연결되어 지형적인 위계로 표출된다. 이처럼 지배층과 피지배층은 지형의 위와 아래에 나누어 입지했고, 손·이씨 두 가문의 대종가는 골짜기 최상단부에, 분가는 봉우리를, 파종가와 정자 그리고 서당은 다시 그 안에서 요충지를 자리 잡는 동 지형을 신분과 가문이라는 사회구조에 맞추어 재구성하고 있다.<sup>6,11)</sup>

### 3.2.2. 살림집(宗家)의 경관상

하회마을 안길로 들어가면 완만하게 솟아오른 오른쪽으로 풍산류씨 대종가 양진당이 자리하는데, 입향조인 柳從惠가 터를 잡아 겸암(동생 서애와 향촌의 기반 구축)이 지은 정남향집으로 절제된 풀의 경영과 동적 긴장감을 감지하게 되고 사랑채는 높이

와 치장정도에 의해 대종택의 권위성을 엿볼 수 있으며, 사당 너머로는 수령 800년 된 느티나무가 보이는데, 이 곳이 洞神을 모시는 삼신당이다.

양진당 길 건너편에 서애의 고택인 충효당이 남서향하여 자리하는데, 증손 柳宜河가 확장 중수하였으며, 행랑채, 사랑채, 안채, 사당이 마당과 짝을 이루어 접근할 때 마다 울동적인 공간감을 느낀다. 구성체계는 대종가의 권위를 의식하는 절제성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사랑채 또는 대문을 통해 시선을 화천쪽으로 연장시킴으로써 인공과 자연의 판류를 모색하고 있다. 마을의 기와집과 초가는 주변산세를 닮은 소박한 모습인데, 토담과 마을길의 부드러운 선형미 등은 아름다운 향토예술경관이 된다.

양동마을의 경우 1458년 손소가 자리잡은 서백당(대종가)은 안골 깊숙한 곳에 터를 잡았고, 이씨의 입향조 이변(이언적의 부친)이 양동에 장가들어 1508년 조영한 무침당은 물봉골 끝에 자리하는데, 두 가문의 종가가 골짜기 하나씩을 선점하였고, 차남들의 살림집이 또 다른 봉우리를 분점하여 판가정(손종돈이 분가하여 조영)이 마을어귀 물봉 서쪽에, 향단(이언적이 동생 이언팔을 위해 조영)이 동쪽에 포치되었다.

서백당(일명 松檐)은 안채, 사랑채, 행랑채, 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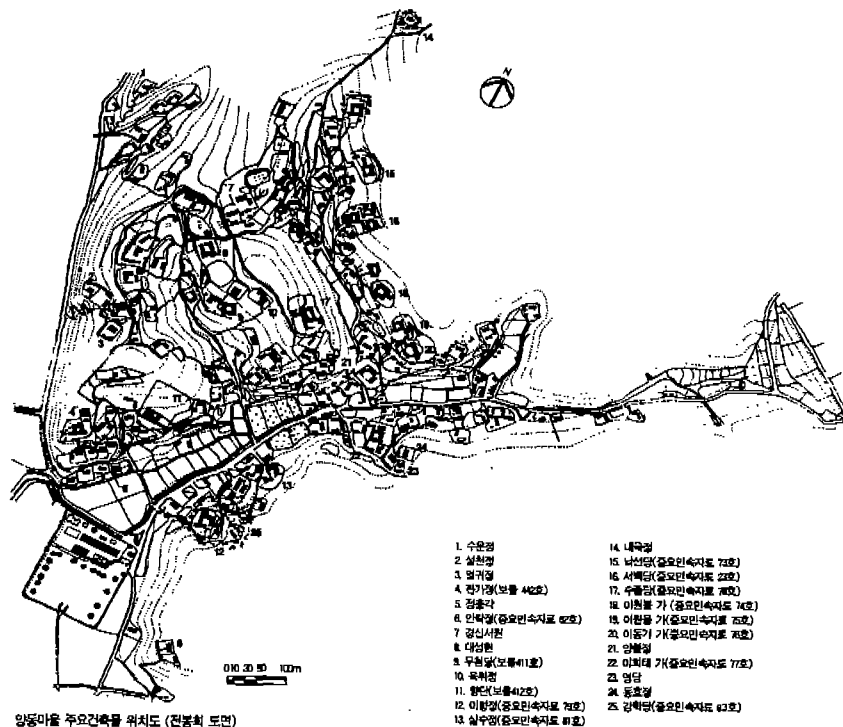


Fig. 4. Arrangement plan of the Yangdong traditional village.

의 4개영역으로 분절되는데, 사랑대청에서 조망되는 내원과 외원(마을의 경관상)은 佳景이며 회화나무, 동백, 협죽도 등이 어우러지고 사랑뜰에는 향나무가 정심수로 자리한다. 무침당(별당의 당호)은 동쪽에 살림채, 서쪽에 별당, 북쪽에 사당을 두었는데, ㄱ자형 별당은 누마루가 돌출되어 마을을 俯感할 수 있으며, 회화나무가 어우러진 사당을 안대로 삼아 심수정과 강학당을 포치시켰다. 관가정(사랑채 당호)은 안채, 사랑채, 행랑채가 하나의 몸체를 이루고 북동쪽으로 사당이 위치하는데, 깊숙이 앉혀 돌출적이지 않으나 호명산을 안대로 하여 서쪽으로 펼쳐진 안강평야의 정경이 한눈에 들어와 파노라마 경관이 연출된다. 관가정에는 회화나무, 배롱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향나무 등을 심었고 피석울 두어 의경미를 추구하는 家主의 작정관을 엿볼 수 있다. 향단은 2단으로 구분된 用자형 구성인데 아랫단에 행랑채를 두었고 윗단에 사랑채, 안채가 하나의 몸체를 이루며 각각의 마당을 갖는다. 주택 외관 전체를 노출 시킴으로서 마을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건물로 미로와 같이 연결된 동선체계, 격식을 과감히 변형시킨 개성주의의 반영 등 표현주의적 낭만성이 감지된다.<sup>11)</sup>

### 3.2.3. 별서·누정의 경관상

하회마을 북서쪽 화천변 기슭에 자리한 원지정사는 1576년 류성룡이 부친상을 당해 기거하던 곳으로 만송정 숲이 내려 보이는 서북쪽의 부용대와 마주하는데, 이곳에 딸린 燕座樓는 부용대의 氣에 대응하려는 풍수적 의도로 조성된 高樓이다. 연좌루는 낭만성과 풍류가 표출되는데, 실체와 허체의 조합 그리고 인공에 기대어 자연경관미를 향유하는 공간이 된다. 류성룡이 기거했던 빈연정사는 원지정사 서쪽 화천변에 소박하게 조성되었는데, 장방형뜰에 연못을 파고 연꽃도 길렀으며 북쪽으로 부용대 상반부가 조망된다. 빈연정사의 건립(1583년)은 겸암이 45세 되던 때로 풍요와 생성의 땅에서 대가족을 안전하게 이끌려는 가장으로서 책임감과 삶의 여정을 순결하게 다듬고자 하는 심정을 담은 정적 공간이 된다.<sup>12)</sup>

깊은 沼(賓淵)를 낀 부용대 북벽 위에 자리한 류성룡의 서재가 겸암정사인데 반달형 담으로 경계를 지었다. 겸암의 나이 29세 때(1567년) 조성되었는데 개방된 조망경관을 형성하여 화천과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을 부감할 수 있다. 옥연정사는 부용대 기슭에 겸암정사와 상용된 위치인데, 서애가 45세 때 지은 서당이자 별서로 懲愆錄(국보 132호)을 저술하며 임진왜란을 평가했던 유서 깊은 곳이다. 화천이 마을을 표주박 모양으로 안고 흐르다가 방향을 바꾸

어 玉沼를 이루는 푸른 물빛을 따서 붙였는바 화천의 정취와 숲을 배경으로 문간채·바깥채·안채·별당으로 구성되는 건물군은 자연에 접속되는 순응적 표현체가 된다.

양동마을의 경우 정자는 손·이씨 양대 가문 뿐 아니라 같은 성씨내의 분파끼리도 경쟁적으로 건립했기 때문에 지금도 10개 이상의 정자가 남아있다.<sup>11)</sup> 즉, 시야가 훤히 트인 안경평야와 마을 경관을 조감할 수 있는 천혜의 입지환경에 걸맞게 아름다운 경치가 조망되는 한적한 곳 또는 능선부 거점에 포치되어 자연을 매개로 시상과 풍류를 즐기는 휴양처 기능은 물론 가문의 회외처로 경영하는데 하인들이 기거하면서 서비스할 수 있는 행랑채와 연계된 공간구조를 보인다. 손충돈의 손자 손엽이 1582년 창건한 수운정은 별서형 정자로 마을 북쪽 갈곡의 독립된 봉우리에 위치하는데, 안강평야와 안락천, 안강읍이 원경으로 조감되는 가운데 계절변화에 따른 농경문화의 수평경관이 파노라마 경관을 연출한다.

이씨 가문이 1560년 창건한 심수정(일명 三觀軒)은 거림 능선부에 자리하는데, ㄱ자형 정자에 행랑채가 대각선 방향에 놓여있는 별서가 된다. 이곳에는 노거수인 회화나무 3그루 사이로 무침당이 정점으로 조망되고 정면으로 향단이 조망되는데, 대중가를 안대로 삼아 마을을 굽어보면서 위요된 북촌과 자연경관을 즐기는 의장물이 된다. 뜰에는 회화나무와 배롱나무, 향나무 등을 심었으며 소나무가 병풍처럼 감싸고 있다.

즉, 손씨가 서백당을 중심으로 남북축선상(관가정, 안락정, 낙선당, 내곡정, 수운정)에 이씨가 무침당을 중심으로 방사선상(향단, 심수정, 이향정, 강학당, 양졸정, 동호정, 수졸정, 설천정, 경산서당)에 소종가와 정자, 서당 등을 포치시켜 구심적 경관상을 연출한다.

### 3.2.4. 강학공간의 경관상

하회의 부용대 동쪽에 자리한 화천서원은 1786년 謙菴을 받들기 위해 건립한 서원으로 토담에 둘러싸인 본채와 살림채 사이로 내외담을 두어 영역성을 확보하였고 2원화된 동선체계를 갖는다. 소박하게 절제된 공간구성을 보여주었던 이 곳은 1996년 문루와 사당, 동서재, 삼문, 전사청, 원문을 갖추어 현재의 모습으로 확장하였다. 화천을 경계로 병산에 마주하여 자리한 병산서원(사적 260호, 류성룡과 류진 배향)은 松林으로 경역을 인식하게 되는데 주공간인 立教堂과 東·西齋, 尊德祠의 구성에는 대칭적 배치, 중심축 설정, 樓下進入 등의 요소가 도입되었다. 만대루는 7폭 병풍을 둘러친 듯 송림이 우거진

병산과 백사장, 화천이 어우러진 승경을 시각적 사 진들을 통해 내부로 끌어들이고 있다.

양동의 손·이씨는 自門의 서당(안락정과 강학 당)과 서원(동강서원과 옥산서원)을 경영하고 있다. 손씨가 서당인 안락정은 1780년 창건된 건물로, 동 구 밖 동남쪽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여 독립적 영역 성을 보여주는데 앞뜰에는 바위돌로 연못과 석가산을 두었으며 자연경관미를 조감할 수 있다. 강동면 유금리 형제산에 자리잡은 동강서원은 우재 손중돈(청백리로 도승지, 이조판서 역임)을 향사하고 학덕을 기리기 위한 서원인데, 묘우를 중심으로 강당과 동·서재 등이 있다. 안락정에 대응하여 1867년 이 씨들의 서당으로 조성된 강학당은 심수정 뒤쪽 구릉위에 위치하여 무첨당을 안대로 삼아 마을 전경이 조망되는 입지를 보여주는데, ㄱ자형 강당 입구에 부속 행랑채를 두어 서비스를 담당한다. 또 다른 이씨의 서당으로 1970년 안계댁 건설공사로 이축된 경산서당이 갈곡에 자리한다.

경주 안강 자옥산과 화개산 자락 獨樂堂(1532년 회재가 42세 때 은둔을 위해 조영한 별서) 아래에 아름다운 계정을 사이에 두고 회재 이언적(성리학자, 東方五賢)을 배향하기 위해 1573년 玉山書院을 창건하였는데, 강학처를 두고 후면에 사당을 배치한 완결형, 은둔형 공간구조를 보이면서 중심축을 따라 문루, 강당, 사당이 질서있게 배치되어 연속성과 구심성이 표출되는 등 전체적으로 은폐성, 긴장감, 위계성 등의 관계를 고려한 구성이 된다.

### 3.2.5. 민간신앙과 경관상

하회의 민간신앙 제의처로 上堂(山神)은 화산중턱에 下堂(農耕神)은 마을 뒤 경작지 내에 건물로, 三神堂(産神)은 양진당과 충효당 사이에 巨樹로, 마을 입구인 큰 고개와 작은 고개에 하나씩 城隍堂이 자리한다. 제의는 상당→하당→삼신당 순서로 진행되며, 탈놀이인 별신굿(양반들의 위선과 불교의 타락상, 상민들의 애환을 풍자)이 하층민 중심으로 삼신당 앞 공터에서 행해졌으며, 유씨 문중만이 참여하는 仙遊 불꽃놀이(줄불놀이)가 음력 7월 16일 화천에 떠온 배에서 행해지는 詩會와 함께 이루어지는데 부용대 상단에서 晚松亭까지, 그리고 옥연정사와 화천서원까지 걸치는 줄불과 화천 수면 위에 띄운 달갈불 및 부용대에서 불을 밀므로 던지는 落火 놀이가 함께 이루어진다. 이 낙화 불꽃놀이는 백사장 위에서 은은하게 터지는 불꽃과 강위 달갈불 밝기의 強弱長短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흥취를 고조시키는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한다. 특히, 민중계급의 당제와 별신굿은 堂을 중심으로, 류씨 문중의 줄불 놀이는 芙蓉臺에서 행해졌음을 볼 때, 전자는 도착

놀이 방식으로 후자는 유교문화인 詩會 형식으로 행해졌다는데서 대조적인 문화구조를 사회적 행위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sup>13)</sup>

양동의 민속의례인 줄당기기는 2-3년 마다 음력 정월과 8월 대보름 전후에 행해지는데 마을에 우환이 들거나 불안할 때 길흉화복을 점치기도 하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의의를 지닌다. 여기에는 주술적 절차와 토속신앙적 의미가 연계되는데, 마을의 거릿말 중간지점에 옷말과 아랫말로 나뉘어 암줄과 솟줄을 교대로 당기면서 경기를 벌이는데 옷말이 이기면 풍년이 들고 아랫말이 이기면 마을이 편안해 진다하여 대동단결은 물론 풍요와 부를 기원하며 안녕을 도모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 서래술놀이는 모내기 후 음력 7월에 정자목 아래 주인들이 머슴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위로연을 베푸는 행사로 현재는 전승되지 않는다. 호미씻기는 三伏이 지나고 세벌논을 맨후 농사를 제일 잘 지은 머슴을 뽑아 농악을 울리며 떡과 음식을 나누고 아랫말 은행나무에서 하루를 즐기는데, 이때 지신밟기를 겸하면서 주인과 머슴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일체감을 형성하는 기회가 된다. 양반층에서는 음력 5월 그믐날 정자를 개장하여 노인들을 모셔다가 보신탕을 대접하면서 시조를 읊기도 하는데 初伏, 中伏, 末伏에 음식을 준비해 오거나 주인이 음식을 내기도 하면서 자연풍치를 즐기고 신선적 풍류 문화를 체험하는 사례가 된다.<sup>10,15)</sup>

## 4. 환경설계원칙과 문화경관상의 고찰

범신론적 자연관과 사물관은 동양의 철학체계인 음양사상과 결합되어 풍수론 이라는 구체적인 환경 조성의 규범이 되었으며, 유교적 경관지표가 되는 대·소종가와 사당, 재실, 서당, 서원, 별서와 정자 등이 환경설계 지표들로 전승되는 양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회, 양동마을의 공간구성에 반영된 환경설계요소와 문화경관상은 자연과 화합하는 순응의 미학공간, 공간의 율동적 인도와 암시, 동과 정이 교직된 역동성, 주종점을 相和시킨 환경공간, 은유적 탐미관이 반영된 예술공간, 민속신앙과 문화가 어우러진 相生의 공간, 인간적 척도의 공간과 시계열적 연속공간 경영이라는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을과 살림집, 별서와 누정, 강학공간, 민간신앙 속에 반영된 환경설계원칙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5. 결 론

하회·양동마을은 山水眞景한 背山臨水+藏風得水+前窄後寬의 길처에 조영체(살림집, 누정, 서당 등)를 자연스럽게 접속시켜 생태계와 자원을 중시하는

신상섭

Table 3. Environmental design principles and cultural landscape pattern

Design principle	Hahoe(河回) traditional village.	Yangdong(良洞) traditional village.
자연과 화합하는 순응의 미학공간	태극도형을 이루는 S자형 화천을 사이에 두고 음양의 접합과도 같이 자연속에 살림집과 별서, 누정 등을 대입시켜 자연과 인공을 상화시키는 환경구성체계	勿자형곡을 이루는 구릉지 사이 골짜기에 최소한의 인공적 조작으로 자연속에 살림집과 누정, 강학공간 등을 접속시킨 배산임수형 산촌마을적 공간구성체계
울동적인 인도와 압시	마을어귀로부터 마을 중심부 종가(양진당과 충효당)와 삼신당 느티나무에 이르는 어귀길-안길-셋길의 중심원적 동선체계에서 기승전결의 울동적 환경설계원칙이 반영됨	前窄後寬의 양상을 보이는 공간체계하에 커다란 나뭇가지로 연상하는 동선구조에서 바깥길-어귀길-안길-셋길-오솔길로 전개되는 심리적 이완, 긴장, 완충, 안도상황
동과 정이 교직된 역동적 공간경영	정주공간과 자연, 화천과 남산, 살림집과 별서, 건물과 마당, 부용대와 만송정, 구심적인 마을길 구성 등 수많은 요소들이 엮물리는 방식에 의해 역동적인 시간에 예술공간으로 승화되는 공간구성	정주공간과 자연, 구릉지와 골짜기, 살림집과 누정, 건물과 마당, 마을상정수와 정심수, 원시적인 마을길 구성 등 수많은 요소들이 엮물리는 방식에 의해 역동적인 시간에 예술공간으로 승화되는 공간구성
주중침을 相和시킨 환경공간	대종가와 소종가(양진당과 충효당, 복춘택과 남촌택) 소작농, 가람집 등의 위계적 구성과 정침건물과 별서(원지정사와 빈연정사, 옥연정사와 겸암정사), 서원(화천서원과 병산서원) 그리고 사당,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 등 주중침공간이 살림집과 마을공동체 전체를 이루는 공간구성	대종가와 소종가(서백당과 무첨당, 관가정과 향단) 소작농, 가람집 등의 위계적 구성과 정침건물과 누정(수운정과 심수정), 강학공간(안락정과 강학당), 서원(동강서원과 옥산서원) 그리고 사당,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 등 주중침공간이 살림집과 마을공동체 전체를 이루는 공간구성
은유적 탐미관이 반영된 예술공간	부용대를 중심으로 자연경관을 끌어들이어 즐기는 外景의 감상(仰景과 附景, 靜觀과 動觀)과 경승이 빼어난 하회16경의 경영, 그리고 자연속에 만송정 송림 조성, 원지루와 옥연정 같은 문학적 경관요소 등 은유적 탐미관의 반영	종가와 누정, 서당과 같은 마을의 거점영역은 경관관찰공간으로 설정되어 자연경관이 원경으로 차경되고, 운치있는 정심수(향나무)와 상징성을 반영한 세한삼우와 학자수(회화나무)의 도입 등 형이상학적 의의미와 탐미관의 반영
민속문화가 어우러진 相生의 공간	민간신앙제의처로 산당(山神)과 중당(農耕神), 하당(産神, 느티나무 당목)이 존재하고, 서민들의 별신굿탈놀이가 삼신당 앞에서 양반들의 줄불놀이가 부용대와 화천에서 대조적으로 행해졌는데 이러한 양상은 자연속에 상징경관과 인조경관 그리고 민속생활문화가 접속되어 총체적 문화경관으로 승화되는 경관상	민간신앙제의처로 버드나무(고사목) 당목이 존재하고 민속의례로 윷마루와 야랫마을의 줄당기, 머슴들의 위로연 행사인 호미씻기와 서리술놀이, 경노효친의 이념이 반영된 경자재장행사 등 자연속에 상징경관과 인조경관 그리고 민속생활문화가 접속되어 총체적 경관으로 승화되는 문화경관상
인간적 척도의 공간과 시계열적 연속공간 경영	보행한계 범위내에서 단위살림집과 강학처, 별서와 누정, 서원, 생활편의시설, 민간신앙 제례처 등의 위치선정, 수용력이 반영된 마을길(어귀길, 안길, 셋길)의 설정 등 인간적 척도(human scale) 반영 마을조영 중심인물로 서애(류성룡)는 충효당-원지정사-옥연정사-병산서원으로, 겸암(류운룡)은 양진당-빈연정사-겸암정사-화천서원으로 이어지는 생성·풍요·초월·회귀라는 체험 경로를 연속공간으로 확장하여 문중이 종가를 중심으로 누정, 서원, 별서, 살림집을 접속시킨 연속공간 경영	보행한계 범위내에서 단위살림집과 강학처, 누정과 서당, 생활편의시설(우물, 빨래터, 마을마당 등), 민간신앙 제례처 등의 위치선정, 수용력이 반영된 마을길(어귀길, 안길, 셋길)의 설정 등 인간적 척도를 반영한 설계 마을조영 중심인물로 우재(손준돈)는 서백당-관가정-수운정-동강서원으로, 회재(이언적)는 무첨당-독락당-심수정-옥산서원으로 이어지는 생성·풍요·초월·회귀라는 시계열적 체험 경로를 연속공간으로 확장하여 문중이 종가를 중심으로 누정, 서원, 별서, 살림집을 의도적으로 접속시킨 환경설계

가치관이 내재된 생태자원관리형 환경설계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마을입지와 공간구성에는 자연의 形象에 민간신앙 그리고 풍수사상, 유교적 사회제도 등을 결합하여 지배층과 피지배층 또는 동족과 이족간에 경영된 생활문화 조영체의 교직을 통하여 미학적 文化景觀相을 완성하는 정주환경 조성의 틀을 보여준다.
- 2) 향촌의 기반을 확립시킨 인물로 하회의 西厓는 충효당-원지정사-옥연정사-병산서원으로, 謙菴은 양진당-빈연정사-겸암정사-화천서당으로, 양동의

우재는 서백당-관가정-동강서원으로, 회재는 무첨당-독락당-옥산서원으로 이어지는 시계열적 起(생성)承(풍요)轉(초월)結(회귀)의 체험 경로(살림집-별서와 누정-서당과 서원)를 연속 문화경관으로 전개시킨다.

- 3) 남촌과 북촌, 상촌과 하촌으로 분절되는 공간구성체계는 종가가 중심가옥으로 입지되고 마을의 좌향은 진산이나 종가 등 상징적 장소를 연결하는 축에 의한 상대향을 설정하며, 마을길 역시 중심가옥을 향하여 심리적 긴장-완충-안도감을 인식시키고 연속성을 반영하는 步移景移의 역동



성과 울동미를 體感하게 된다.

- 4) 자연산하에 의해 경계되는 此(살림집)와 彼(별서와 누정, 또는 書院)의 환경설계구도는 실존과 이상이 결합된 구도로 이어지는바, 동쪽과 이쪽들이 벌여왔던 선의의 경쟁과 화합의 표상으로서 공동체를 구축하는 생태적 문화예술공간이 된다.
- 5) 대종가와 소종가, 소작농과 가람집 등의 공간구성에는 위계성이 설정되어 주종침의 공간분화가 나타나고, 지배층과 서민층 또는 동쪽과 이쪽간에 의해 행해지던 민간신앙요소들은 수행주체와 시기, 방법, 위치에서 차별화 되는데 眞景(자연: 聖)속에 象徴景(堂, 洞巖)과 人造景(주거: 俗)이 접속되는 종합 문화경관상이 연출된다.
- 6) 종가와 누정, 서당 등 거점영역은 경관관찰점으로 설정되어 자연경관이 원경으로 차경되고, 운치있는 정심수와 상징성을 반영한 세한삼우와 학자수의 도입 등 형이상학적 의경미와 탐미관이 반영되며, 조망특성은 내부적 경관의 개방적인 가시성과 외부적 경관의 폐쇄된 비가시성을 갖는 양면성을 표출하는데, 하회는 조망의 대상으로 양동은 조망의 거점으로 작용된다. 특히, 인위적으로 조성된 內苑과 정원(內園) 그리고 자연경관인 外苑과 外園을 경영하였는데, 미적 쾌감을 유발하는 수경연출기법, 마을숲과 누정의 경영, 살림집 사랑뜰과 후원에 화오(花塢)나 화계를 두는 경관형성효과 등 곳곳에서 한 폭의 아름다운 정물 경관을 연출하였다. 이때, 水木石의 적절한 도입은 실용적 가치기준에 신앙관과 상징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등 인체의 5감을 자극하면서 공간에 활력을 주고 계절미를 통한 감흥을 유발시키는 열락형 정원이 되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적 경관이 된다.

본 연구는 하회와 양동마을을 중심으로 특징적으로 표출되는 환경설계원칙과 문화경관상에 대한 물리적 정체성을 구명하였는바, 앞으로 전통마을 전반에 걸친 조사연구를 통하여 지역적 특이성과 차이점 그리고 전통마을에 작용된 환경설계원칙의 원형추출과 같은 후속연구를 과제로 남겨둔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우석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됨.

#### 참고 문헌

1) Calcagno, A. M., 2000, Conservation of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한국정원학회지, 34, 85.

- 2) Rapoport, A., 1969,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 Hall, 80pp.
- 3) 서주환, 이시영, 2000, 전통마을을 통한 한국버나쿨러경관의 특성, 한국조경학회지, 77-58.
- 4) 신상섭, 1999, 전통마을 경관보전에 관한 정책대안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20(2), 12-13.
- 5) 최기수, 1998, 조선시대 층재 권벌의 유곡마을 조영에 관한 연구, 한중일조경학회 심포지움집, 5pp.
- 6) 김한배, 1992, 한국전통마을과 읍성의 경관성, 도서출판 조경, 259-271pp.
- 7) 김성균, 1989, 하회, 환경과 조경 8903, 94-97.
- 8) 신상섭, 1999, 전통마을의 공간구성과 환경설계, 국토연구원 국토지, 9, 84-85.
- 9) 신영훈, 1999, 안동하회마을, 조선일보사, 14-16pp.
- 10) 경상북도, 1979, 양동마을 조사보고서, 하회마을 조사보고서.
- 11) 김봉렬, 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 이상건축, 228-258pp.
- 12) 강거배, 1988, 절제의 공간, 한국정원학회지, 6(1), 45-56.
- 13) 김용직, 1986, 안동하회마을, 열화당, 47-111pp.
- 14) 김영덕, 1988, 서애 유성룡선생의 정자기와 시에서 살핀 옛뜰, 한국정원학회지6(1), 73-75.
- 15) 김근호, 1987, 한국전통마을의 경관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강선중, 1990, 마을의 구성, Plus 9002, 149, 150-151.
- 17) 김홍식, 1987, 한국의 미 -민가의 형성과 건축적 특성-, 중앙일보사, 183-186pp.
- 18) 문화재청, 2001, 문화재연감, 671pp.
- 19) 민경현, 1991, 한국정원문화, 예경문화사, 242-246pp.
- 20) 유병립, 황기원, 박종화, 1989, 조선조 정원의 원형, 73-81pp.
- 21) 이몽일, 1991, 한국풍수사상사, 명보문화사, 152-153pp.
- 22) 이상일, 1979, 한국의 장승, 열화당, 16pp.
- 23) 이원교, 1983,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구성, Plus 8903, 151.
- 24) www.anu.andong.ac.kr, www.yangdongsarang.com.